

화장품

K-뷰티는 지속된다

■ 정한솔 hansol.jung@daishin.com



화장품

- 지난 3년간 한국 화장품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중국에 가려져 주목 받지 못했던 지역에서 혁신적인 제품력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채널 중심 'K-Beauty'라는 독립적인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급성장. 결과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구조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 국내 주요 브랜드사 해외 매출 확대 지속. 달라진 점은 과거 중국 중심 해외 매출 구조에서 다변화된 지역 진출 가속화. 신규 인디브랜드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까지 빠르게 확대
-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K-Beauty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하고 있으나,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더 많은 브랜드사들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SNS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 확대에 나서며 경쟁 심화 우려 존재.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프라인 확장 필수
- 2025년 온라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Ulta/Sephora/Boots 등 뷰티 전문 리테일러 채널 입점 시작. 오프라인 리테일은 통상적으로 입점 초기 한정된 SKU 기반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리오더, 카테고리 확장 및 매대 확대가 이어지는 구조. 2026년 리오더 사이클 본격화되며 오프라인 매출 확대 예상. Sephora·Ulta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브랜드 충성도 형성. 또한 리테일러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공동 마케팅 전개, 진출 국가 확대 등 추가 성장 요인 존재. 결국, 온라인은 성장을 시작하는 채널이고, 오프라인은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채널. 2026년은 K-뷰티가 온라인 기반 성장의 다음 단계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는 단계 예상
-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로 지역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유지. 높은 바이럴을 나타내고 있는 인디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ODM사 코스메카코리아를 관심 종목 제시

K-뷰티는 지속된다

화장품 업종 투자의견은 Overweight, Top-Picks는 아모레퍼시픽, 관심종목 코스메카코리아 제시

- K-Beauty 구글트렌드와 비중국 화장품 수출액 높은 상관관계 보유. 여전히 높은 검색 빈도가 유지되고 있어 비중국 수출액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2026년 수출 지역 다변화와 더불어 1) 온라인 확대 지속, 2) 오프라인 확대 본격화로 수출 성장세 유지 전망
- 이커머스 채널은 지난 3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통 채널. 한국 화장품은 SNS에서 바이럴되며 온라인 플랫폼 내 높은 순위권 유지. 바이럴이 용이한 만큼 브랜드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채널로 온라인 매출 성장 지속 예상. 2025년 Ulta/Sephora/Boots 등 뷰티 전문 리테일러 채널 입점 시작. 오프라인 리테일은 통상적으로 입점 초기 한정된 SKU 기반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리오더, 카테고리 확장 및 매대 확대가 이어지는 구조. 2026년 리오더 사이클 본격화되며 오프라인 매출 확대 예상
- 2026년 K-뷰티가 온라인 기반 성장의 다음 단계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는 단계. 화장품 업종 최선 호주로 지역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유지. 높은 바이럴을 나타내고 있는 인디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스메카코리아를 관심종목 제시

당사 Universe 화장품 업체의 실적 전망 및 투자의견												(단위:십억원,%,배)	
종목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에이피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Marketperform		
목표주가	220,000원		90,000원		100,000원		300,000원		160,000원		250,000원		
현주가 (11/26)	163,100원		65,800원		70,300원		250,000원		127,500원		285,500원		
Upside	34.9		36.8		42.2		20.0		25.5		-12.4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2025F	2026F	
매출액	2,379	2,534	2,718	2,874	622	700	1,432	1,988	4,220	4,447	6,524	6,607	
영업이익	200	222	242	275	83	91	347	484	377	411	217	304	
OPM	8.4	8.8	8.9	9.6	13.3	13.0	24.2	24.3	8.9	9.2	3.3	4.6	
%yoy	9.8	6.5	10.8	5.7	18.7	12.5	98.1	38.8	8.6	5.4	-4.2	1.3	
순이익	51	113	106	136	51	59	286	394	316	366	84	171	
ROE	10.8	21.8	12.6	14.4	21.2	20.2	61.2	48.8	5.9	6.5	1.5	3.0	
PBR	4.5	3.8	1.9	1.7	2.8	2.3	14.4	8.7	1.5	1.4	0.9	0.9	
PER	42.1	19.1	16.3	12.6	14.2	12.4	30.8	22.2	26.2	22.7	60.8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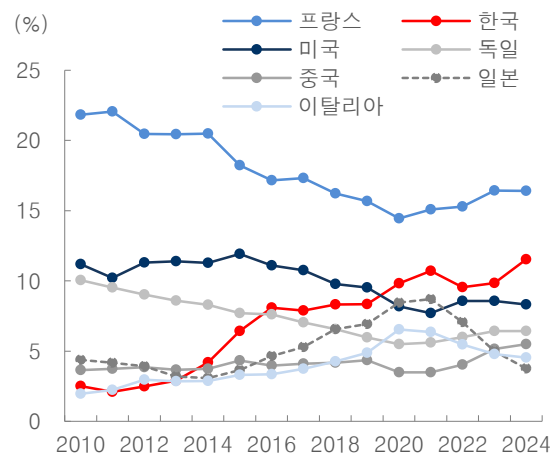
자료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화장품의 성과와 포지션 변화

Global vs K-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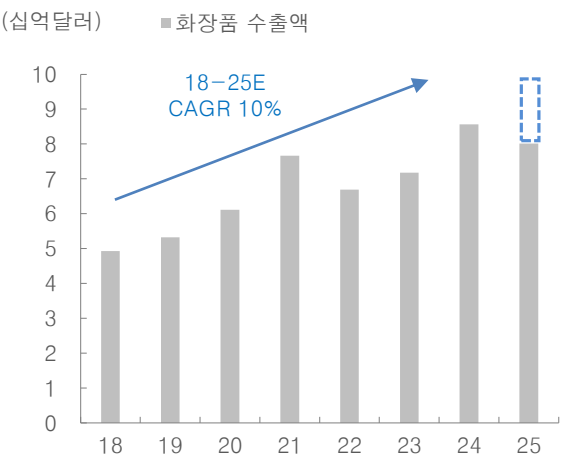
- 한국 화장품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25년 10월 YTD 화장품 수출액은 78억달러(YoY 10%) 기록.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구조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혁신적인 제품력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채널에서 'K-Beauty'라는 독립적인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급성장. 3Q25 누적 기준 프랑스 화장품 수출액 YoY -0.3%, 한국 YoY 13%로 1위국 프랑스와 점유율 축소 예상
-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국내 화장품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10월 YTD 비중국 수출 YoY 22%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 2026년 미국 온라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로의 진입 가속화 및 유럽, 남미 등 그동안 침투율이 낮았던 지역에서의 확장을 통해 수출 성장 지속 전망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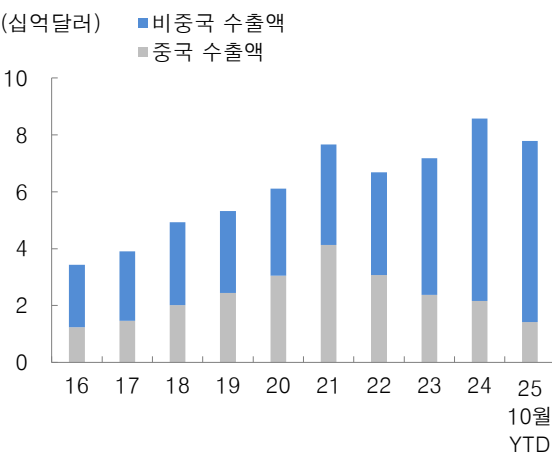
자료: ITC, 대신증권 ResearchCenter

한국 화장품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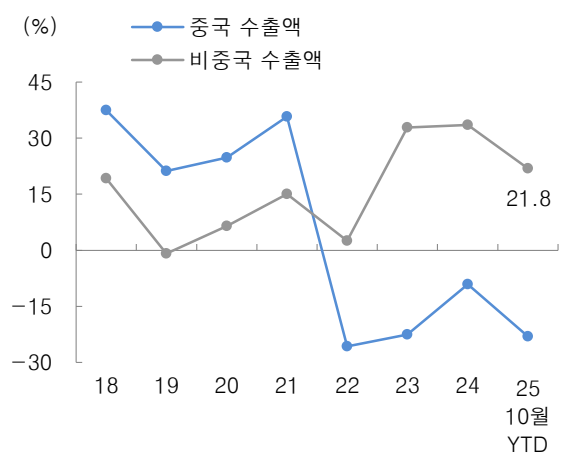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Center

한국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Center

한국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 YoY 추이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Center

한국의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수출액	3,437	3,907	4,923	5,322	6,112	7,661	6,687	7,182	8,575	7,788
YoY	40.9	13.7	26.0	8.1	14.8	25.3	-12.7	7.4	19.4	10.1
아시아										
중국	1,242	1,466	2,014	2,440	3,045	4,132	3,069	2,377	2,160	1,415
YoY	25.1	18.0	37.4	21.2	24.8	35.7	-25.7	-22.6	-9.1	-23.1
비중	36.2	37.5	40.9	45.8	49.8	53.9	45.9	33.1	25.2	18.2
일본	154	194	255	343	548	665	622	667	840	736
YoY	36.3	25.5	31.8	34.3	59.8	21.4	-6.4	7.2	25.9	6.8
비중	4.5	5.0	5.2	6.4	9.0	8.7	9.3	9.3	9.8	9.4
베트남	1,078	963	1,035	789	614	490	339	438	512	489
YoY	78.0	-10.6	7.4	-23.7	-22.2	-20.2	-30.8	29.3	16.8	24.8
비중	31.4	24.7	21.0	14.8	10.0	6.4	5.1	6.1	6.0	6.3
홍콩	59	123	146	193	227	264	327	445	466	328
YoY	34.9	109.6	18.4	32.4	17.6	16.0	24.1	36.0	4.8	-13.3
비중	1.7	3.2	3.0	3.6	3.7	3.4	4.9	6.2	5.4	4.2
대만	100	125	124	119	126	126	151	166	219	210
YoY	-5.9	24.1	-0.1	-4.1	5.2	0.3	20.0	10.1	31.6	19.8
비중	2.9	3.2	2.5	2.2	2.1	1.6	2.3	2.3	2.6	2.7
태국	96	132	139	117	107	112	130	166	186	168
YoY	27.1	36.9	5.5	-15.6	-9.2	5.1	16.1	27.3	12.3	9.4
비중	2.8	3.4	2.8	2.2	1.7	1.5	1.9	2.3	2.2	2.2
인도네시아	12	22	45	54	53	61	48	68	119	115
YoY	17.3	74.0	107.6	20.8	-2.1	15.0	-21.2	42.4	74.0	19.0
비중	0.4	0.6	0.9	1.0	0.9	0.8	0.7	1.0	1.4	1.5
말레이시아	46	53	65	66	63	73	82	89	112	95
YoY	27.9	14.7	24.2	0.8	-5.1	16.6	12.5	8.3	26.1	4.4
비중	1.3	1.3	1.3	1.2	1.0	1.0	1.2	1.2	1.3	1.2
미주										
미국	298	367	429	430	483	662	699	1,023	1,551	1,493
YoY	43.8	23.2	16.8	0.4	12.2	37.1	5.6	46.4	51.6	15.6
비중	8.7	9.4	8.7	8.1	7.9	8.6	10.5	14.2	18.1	19.2
캐나다	13	21	24	26	31	33	50	67	103	116
YoY	54.8	67.3	15.8	5.9	19.1	7.4	52.6	33.2	54.3	36.8
비중	0.4	0.5	0.5	0.5	0.5	0.4	0.7	0.9	1.2	1.5
유럽										
러시아	40	81	134	181	196	229	221	316	322	303
YoY	38.1	102.5	66.3	34.5	8.5	16.7	-3.2	42.8	1.8	16.9
비중	1.2	2.1	2.7	3.4	3.2	3.0	3.3	4.4	3.8	3.9
영국	6	11	15	19	21	27	30	44	112	196
YoY	38.9	91.4	39.4	23.4	10.9	31.0	12.0	45.9	153.2	120.6
비중	0.2	0.3	0.3	0.4	0.3	0.4	0.5	0.6	1.3	2.5
프랑스	10	18	31	35	45	56	57	91	133	149
YoY	36.3	77.2	76.1	11.9	28.4	25.1	1.4	59.1	46.5	36.6
비중	0.3	0.5	0.6	0.7	0.7	0.7	0.9	1.3	1.6	1.9
폴란드	28	40	63	40	39	50	54	66	68	99
YoY	117.9	43.3	56.7	-36.2	-1.6	26.3	8.5	23.4	2.4	94.7
비중	0.8	1.0	1.3	0.8	0.6	0.6	0.8	0.9	0.8	1.3
네덜란드	2	2	5	6	8	16	20	56	75	83
YoY	62.7	3.2	155.5	21.1	38.5	93.3	29.8	174.2	34.1	25.3
비중	0.1	0.0	0.1	0.1	0.1	0.2	0.3	0.8	0.9	1.1
기타										
아랍에미리트	7	8	12	14	27	39	54	85	159	199
YoY	20.4	16.6	39.1	16.6	95.8	44.1	39.4	56.4	88.0	58.2
비중	0.2	0.2	0.2	0.3	0.4	0.5	0.8	1.2	1.9	2.6
사우디아라비아	5	6	5	9	19	16	21	27	54	53
YoY	8.4	12.6	-2.0	59.0	120.0	-14.8	32.3	25.5	100.8	14.6
비중	0.1	0.1	0.1	0.2	0.3	0.2	0.3	0.4	0.6	0.7
호주	16	19	26	28	32	37	42	61	96	113
YoY	8.3	17.9	36.1	6.6	16.2	15.3	13.3	46.8	56.4	44.5
비중	0.5	0.5	0.5	0.5	0.5	0.5	0.6	0.9	1.1	1.5

주: 2025년은 10월누적기준

자료: KI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속도는 다르지만 동일한 해외 확장 방향성

국내 브랜드사들의 해외 확장 지속

- 국내 주요 브랜드사 해외 매출 확대 지속. 달라진 점은 과거 중국 중심 해외 매출 구조에서 지역 다변화 진술 가속화. 신규 인디 브랜드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까지 상승하며 빠르게 확대. 다만 기업별로 지역별 엑스포저는 상이
 - 아모레퍼시픽: 미국 32%, 중화권 30%, 기타 아시아 27%, 유럽 10%
 - 에이피알: 미국 35%, 일본 15%, 중화권 8%, 기타 및 B2B 30%
 - 브이티: 일본 60%, 중화권 8%, 미국 13%, 기타 19%
 - 달바글로벌: 일본 33%, 러시아 20%, 아세안 16%, 북미 14%, 유럽 7%
- 레거시 브랜드의 경우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 전략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느린 해외 매출 확대 속도, 반면 신규 인디 브랜드(APR, 달바글로벌, 등)의 경우 SNS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확장하며 고성장

화장품 브랜드사 해외 매출 추이		(단위: 십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1H25
아모레퍼시픽	매출액	4,432	4,863	4,135	3,674	3,885	2,073
	해외	1,745	1,802	1,493	1,392	1,679	909.4
	해외 매출 비중	39.4	37.1	36.1	37.9	43.2	43.9
에이피알	매출액	220	259	398	524	723	594
	해외	95	105	144	205	400	492
	해외 매출 비중	43.1	40.7	36.1	39.2	55.3	82.9
달바글로벌	매출액	47	69	145	201	309	242
	해외	2	5	19	45	141	145
	해외 매출 비중	4.0	7.0	13.2	22.3	45.6	59.8
브이티	매출액	75	105	120	163	319	185
	해외	62	90	111	142	203	125
	해외 매출 비중	83.7	86.0	93.0	87.1	63.5	67.5
클리오	매출액	218	233	272	331	352	151
	해외	64	101	100	118	136	54
	해외 매출 비중	29.3	43.6	36.8	35.8	38.7	35.6
아이패밀리에스씨	매출액	79	72	85	149	205	112
	해외	55	46	51	95	141	78
	해외 매출 비중	69.3	64.4	60.3	64.1	68.8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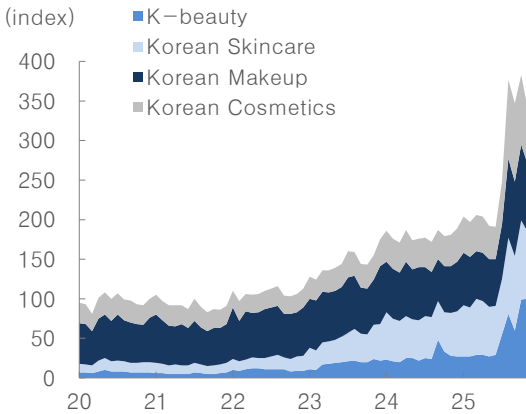
자료: 각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azon · TikTok Shop · 전문 리테일 3각 구도

글로벌 이커머스/소셜커머스는 여전히 뷰티 성장의 최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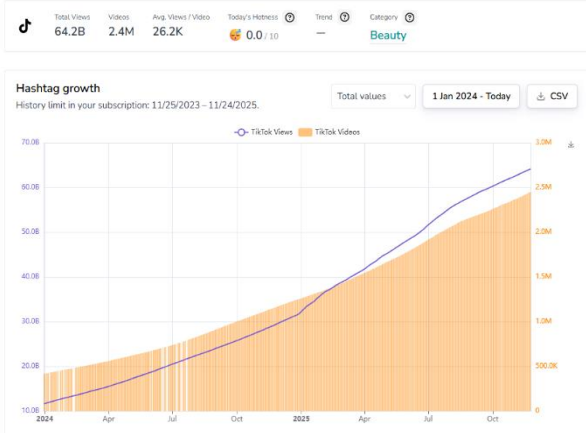
- Amazon·TikTok Shop 등 이커머스 채널은 지난 3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통 채널. NielsenIQ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지난 12개월간 오프라인 매출이 2% 성장에 그친 반면 온라인은 19% 성장하며 산업 성장을 주도. 지역별로는 북미 21%, 아태 20%, 유럽 10%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온라인 성장률을 기록
- 특히 TikTok Shop의 성과가 가파름. 2025년 상반기 GMV 26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성장세. 현재 총 14개국에서 운영 중. 2025년 유럽 4개국 신규 런칭했으며 연내 일본·브라질 추가 예정으로 글로벌 확장 가속화. 소셜커머스는 콘텐츠 소비와 구매행동이 같은 플랫폼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 숏폼 기반 플랫폼의 특성상 짧고 직관적인 제품 사용 경험이 시각적으로 빠르게 전달되며, 뷰티 카테고리와의 최적의 시너지를 형성. K-뷰티의 온라인 마케팅은 이러한 SNS/바이럴 마케팅에 집중. 바이럴이 용이한 만큼 브랜드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채널 전망

글로벌 K-Beauty 검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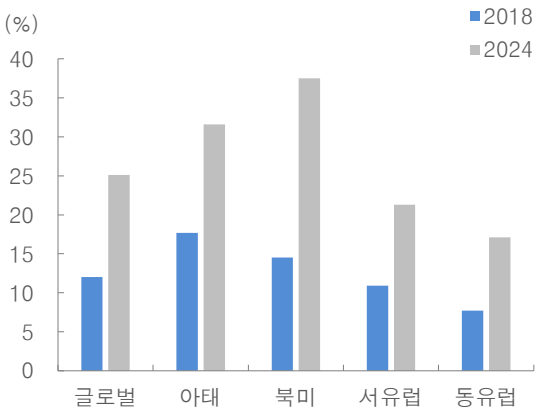
자료: Google, 대신증권ResearchCenter

"K-Beauty" 틱톡 트렌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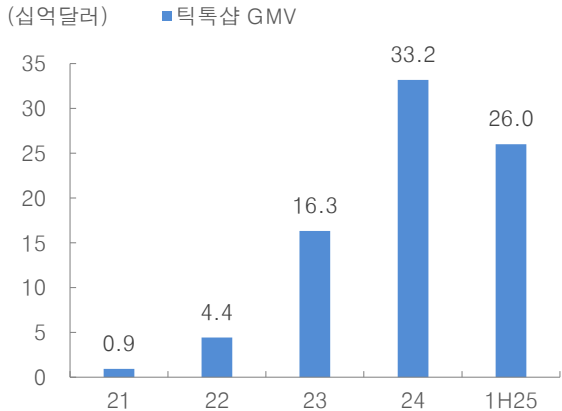
자료: exolyt, 대신증권ResearchCenter

권역별 화장품 이커머스 침투율



자료: 유로모니터, 대신증권ResearchCenter

틱톡샵 GMV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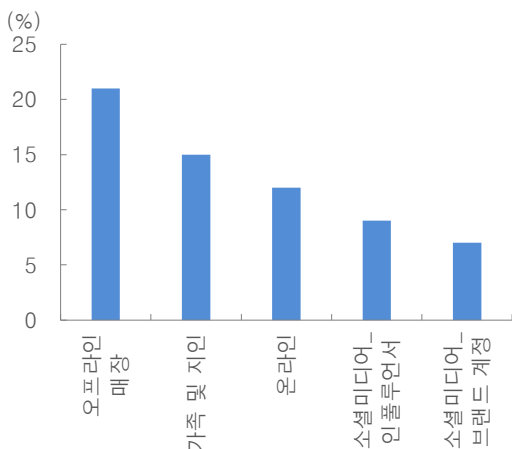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대신증권ResearchCenter

글로벌 : Amazon · TikTok Shop · 전문 리테일 3각 구도

오프라인이 진짜 승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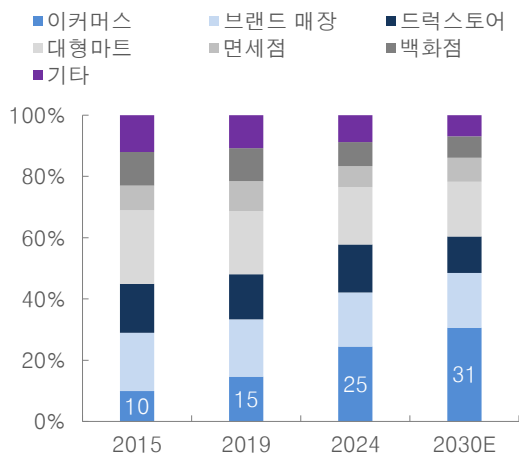
-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화장품 리테일 시장은 오프라인 비중이 70%, 유럽은 80% 수준. McKinsey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최근 새로운 뷰티 브랜드를 발견한 장소"로 가장 많이 꼽은 채널로 오프라인 매장임을 밝힘. 여전히 오프라인은 성장 여력이 더 높은 채널
- 2025년 K-뷰티는 온라인 중심 성장을 넘어 Ulta/Sephora/Boots 등 뷰티 전문 리테일러 채널 입점이 시작된 해. 오프라인 리테일은 통상적으로 입점 초기 한정된 SKU 기반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리오더, 카테고리 확장 및 매대 확대가 이어지는 구조.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월 북미 세포라에 에스트라 런칭, 에이피알은 8월 미국 얼타뷰티 1,400개 매장 입점 완료하고 1~2주 단위 추가 오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달바글로벌도 Ulta뷰티에 올해 연말부터 입점 전망. 2026년 리오더 사이클 본격화되며 오프라인 매출 확대 예상
- 오프라인 입점 이후 온라인 채널과의 카니발 우려 존재. 그러나 오프라인 장점은 1) 매장 노출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확보, 2) 테스트 경험·직원 추천 등 소비자 접점 강화 가능. Amazon·TikTok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성장한 K-뷰티는 이미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효능 기반 스토리텔링에서 강점을 증명. 하지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는 한계 존재. 바이럴 브랜드로 인식되기 쉽고, 최근 광고 비용 상승으로 비용 부담 존재
- Sephora·Ulta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리테일러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공동 마케팅 전개, 진출 국가 확대 등 추가 성장 요인 존재. 결국, 온라인은 성장을 시작하는 채널이고, 오프라인은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채널. K-뷰티가 온라인 기반 성장의 다음 단계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는 단계 예상

글로벌 소비자 신규 뷰티 브랜드 발견 채널



자료: McKinse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뷰티 시장 채널별 비중



자료: McKinse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아모레퍼시픽 (090430)

브랜드 맛집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현재주가 (25.11.26)	127,500원

KOSPI	3,960.87
시가총액	7,9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4%
자본금(보통주)	2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5,700원 / 99,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64억원
외국인지분율	23.19%
주요주주	아모레퍼시픽그룹 외 18인 50.15% 국민연금공단 7.4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4	4.3	-5.8	16.5
상대수익률	6.9	-16.3	-37.1	-25.8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 2026년 매출액 4조 4,470억원 (YoY 6%), 영업이익 4,110억원 (YoY 11%, OPM 9.2%) 전망
- 투자포인트는 1) 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 2) 중국 법인 턴 어라운드 지속, 3) COSRX 회복
- 북미와 EMEA, 일본 등에서 자체브랜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중심으로 고성장하며 지역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속화. 25년 신규 런칭한 더마브랜드 에스트라 매출 비중이 MSD%까지 확대되며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며 본업 확장 돋보일 전망
- COSRX는 1) 미국 온라인 채널/가격 재정비 마무리, 2) 신제품 출시, 3) 유럽지역 실리콘투 협업 등으로 매출 회복 예상. 기존 주력 제품인 스네일 라인에서 RX라인과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한 ODM 라인업을 강화하며 실적 모멘텀 강화 예상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674	3,885	4,220	4,447	4,645
영업이익	108	220	377	411	450
세전순이익	281	621	401	434	473
총당기순이익	174	602	321	347	379
지배지분순이익	180	593	316	366	399
EPS	2,608	8,591	4,583	5,301	5,779
PER	55.6	12.2	26.2	22.7	20.8
BPS	70,933	76,066	79,240	83,599	88,136
PBR	20	1.4	1.6	1.5	1.4
ROE	3.7	11.7	5.9	6.5	6.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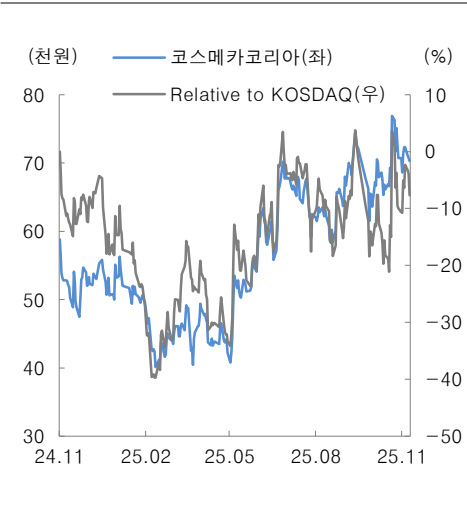
코스메카코리아(241710)

다시 한번 레버리지 기대 구간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00,000원 (유지)
현재주가 (25.11.26)	70,300원

KOSDAQ	877.32
시가총액	75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6%
자본금(보통주)	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6,900원 / 40,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9억원
외국인지분율	17.03%
주요주주	박은희 외 3인 38.95% 국민연금공단 11.9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5	12.1	36.0	33.4
상대수익률	4.2	2.5	12.4	5.4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0원 유지
- 2026년 매출액 6,999억원 (YoY 13%), 영업이익 914억원 (YoY 10%, OPM 13.1%) 전망
- 투자포인트는 1) 한국법인 수주 회복, 2) 잉글우드랩 턴어라운드
- 한국법인은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객사 다변화 노력 지속, 기존 주력 고객사 또한 SKU 다변화 및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주주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신규 브랜드의 수주 규모 확대 속도에 따라 수익성 추가 개선 가능성 존재
- 잉글우드랩 토토와 기여도 확대 예상. 토토와는 국내 인디 브랜드사의 OTC 수주 증가와 미국 관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던 미국 브랜드들의 미국 생산 이원화 수요 흡수 효과 본격화 예상. 코리아도 기존 고객사 재고 소진과 채널과 지역 확대 전략에 따라 수주 정상화. 대규모 리오더와 자동화 설비 효과가 맞물리면서 영업 레버리지 기대.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471	524	622	700	760
영업이익	49	60	83	91	99
세전순이익	46	68	82	92	98
총당기순이익	34	54	63	71	76
지배지분순이익	22	43	51	59	63
EPS	2,090	4,007	4,763	5,488	5,869
PER	17.4	13.8	14.2	12.4	11.6
BPS	15,874	20,450	24,565	29,679	35,310
PBR	2.3	2.7	2.9	2.4	2.0
ROE	14.1	22.1	21.2	20.2	18.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코스메카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Research Center)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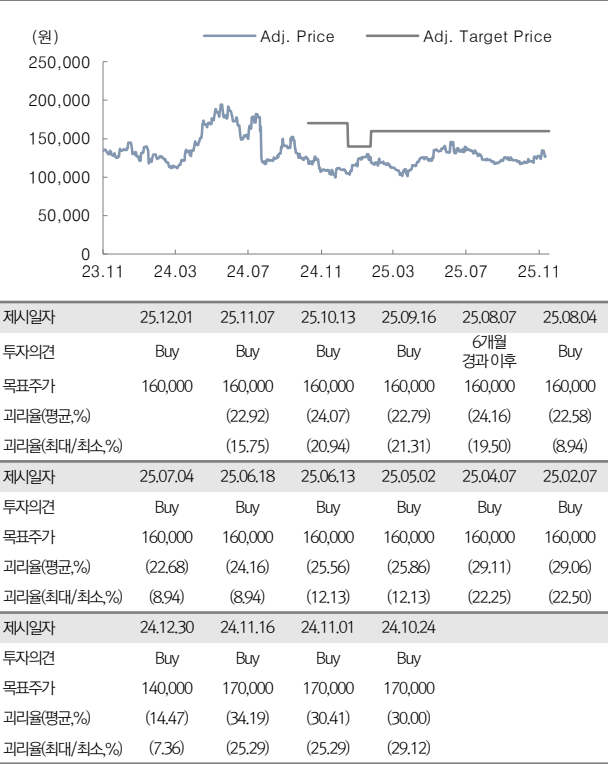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89.7%	10.3%	0.0%

기준일자: 2025.11.2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09043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코스메카코리아(24171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